



INTERNATIONAL JOURNAL of  
CRAFTS and FOLK ARTS

Volume 4, 2023

대담

이정덕

(Jeong Duk YI,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프란시스 소콤바

(Francis SOKOMBA, 비다 시 포컬포인트)

타라 풀

(Tara POOLE, 벨러렛 시 포컬포인트)

남성진

(Seongjin NAM, 진주문화연구소 연구원)



## 지역문화 생태계의 강화와 활성화



이정덕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프란시스 소콤바  
(비다 시 포컬포인트)



타라 폴  
(벨러렛 시 포컬포인트)



남성진  
(진주문화연구소 연구원)

## 1. 한정된 개념의 필요성

문화라는 개념은 아주 다양하게 사용되는 단어이다. 그래서 문화에 대하여 소통할 때 문화를 서로 다른 뜻으로 사용하여 혼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문화라는 단어를 사용한 문화생태계의 개념도 마찬가지이다. 문화의 의미가 달라지면 문화생태계의 뜻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문화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문화인류학이나 인문지리학에서 문화생태계는 인간이 자연생태와 사회생태에 적응하고 상호작용하는 문화현상을 종합적 체계로 접근하는 방식이다. 거시적으로는 자연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의 체계를 통해 문화를 파악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글에서 문화생태계는 위와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문화산업(창조산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산업과 속성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를 산업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는지(예를 들어 대부분의 문화나 창조활동은 이윤과 관련이 없다)에 대한 이견도 계속 나타나고 있지만, 점차 문화산업(창조산업)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하면서 개별 요소에 대한 접근을 넘어 생태계적인 관점을 통한 종합적인 이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노력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문화 전체에 대한 생태계적 접근이 아니라 창조산업에 대한 생태계적 접근이며 따라서 문화생태계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논의는 창조산업생태계에 집중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논의들은 문화생태계보다 창조산업생태계에 대한 접근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뜻을 명확하게 한정시켜야 논의가 보다 구체적으로 진전될 수 있다. 또한 유네스코 창의도시와 관련하여 이러한 논의를 하는 것이므로 이렇게 한정된 개념으로 논의해야 유네스코 창의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찾아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곳에서 생태계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 체계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창조산업의 복합적인 체계와 맥락을 이해하여 지속적으로 유네스코 창의도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함이다. 즉, 기존의 문화산업, 창조산업의 접근이 창조상품의 생산과 소비 또는 창의산업의 집적에 관심을 두었다면, 생태계적 접근은 문화적 환경과 창조적 활동, 다양한 관련자들과 제도의 상호작용, 생산-유통-소비의 체계를 종합적으로

연결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생태계 개념을 이용한 접근은 생태계라는 개념도 문화라는 개념 처럼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어, 이곳에서 사용하는 문화생태계를 창조산업생태계라고 그 의미를 한정하더라도, 매우 다양한 생각과 내용들이 제시되어 논의의 초점이 불명확해질 수 있다. 따라서 좀 더 생산적인 논의를 위하여 창의산업생태계의 체계도 이곳에서 어느 정도 제시하여 논의가 좀 더 집중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2. 창의산업생태계의 핵심 요소

창의산업에 생태계 개념을 적용하는 논의가 2010년 이후 계속 증가하면서 다음과 같은 관점이 핵심적인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1. 문화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 넓고 다양하게 사용되어 혼란스럽기 때문에 논의의 대상을 명확하게 한정하기 위해 문화를 예술(창조활동과 그 결과물)로 간주하자. 2. 따라서 예술(창의산업)과 관련된 예술가(창조/생산), 매개자(기획/유통/마케팅/해설 등), 향유자(소비/구매), 그리고 3. 이를 산업화하는 과정에서의 자본과 유통의 역할이 중요하다. 4. 정부나 기관이나 단체의 정책과 지원이 중요하다. 5. 해당 지역에서의 문화전통, 창조단체, 창조시설, 창조인재, 창조활동, 창조확산, 창조교육, 향유, 산업화(상품화) 등의 문화적 토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물론 외부의 자본이나 외부의 국가나 외부의 창조활동이 위에 언급한 내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생태계적 관점에서 외부적인 요소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외부적 요소와 그 상호작용을 논의하려면 더욱 복잡한 논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이번 기회에는 내부적인 요소에 대한 논의로 한정하고자 한다.

이를 다른 방식으로 분해하면 다음과 같은 요소로 나눌 수 있다. 1. 창의인재(예술가, 매개자, 인재양성, 활동체계, 활동공간), 2. 자본(기획, 산업화, 마케팅, 유통, 이윤), 3. 지원과 시설(정부, 기관, 단체, 시설), 4. 소비와 향유(구매, 참여), 5. 지역문화 배경(문화전통, 문화활동, 제도, 네트워크, 거버넌스). 이들이 계속 상호작용을 하면서 지속적인 상승작용이 이루

어질 수 있는지, 또는 어떻게 해야 가능한지를 지속적 상호작용의 재생산체계로서 파악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참여자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어떠한 방향으로 자극해야 지역창의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까? 이러한 접근을 위해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 어떻게 창의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어떻게 어디에서 성공적인 창조상품을 생산하는 창조활동을 하도록 할 것인지? 어떻게 자본을 유치하고 투입하여 또는 개별 예술/장인/요리 생산자로서 팔릴만한 창조상품을 기획하고 만들어 유통시켜 이윤을 확보할 것인지? 외부의 어떤 자본(기업)을 유치하고 어떠한 관계를 맺을 것인지? 지역의 또는 관광객의 소비와 향유를 어떻게 자극하여 지역의 창조활동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더욱 커다란 이윤을 확보하여 어떻게 확대 재생산의 길로 이끌 것인지? 지방정부나 기관이나 단체는 어떤 장르를 누구를 어떻게 지원하여 이들의 창조활동을 활성화하고 성공적인 상품화의 길로 어떻게 이끌 것인지? 지역의 생산과 소비와 향유의 어떠한 상호작용을 통해 어떻게 이들의 수준을 더욱 높여 외부로도 팔 수 있는 창조상품으로 만들 것인지? 지역적 문화전통과 사회체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지역창조산업과 상호작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어떠한 지역거버넌스가 지역창조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

물론 문화산업(창의산업)이 영화처럼 대규모 복제를 통하여 소비되는 경우도 있고, 개별 장인이나 예술가나 셰프의 수공업적 활동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는 등 분야별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한 거대도시와 농촌지역의 소도시가 매우 다른 형태로 창의활동과 창의산업화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통일된 체계의 생태계로 제시하는 데는 많은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보다 중요한 요소들을 추려서 어느 정도 통일된 체계로 논의가 집중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특히 거대도시들보다 중소도시가 주로 유네스코 창의도시를 형성하고 있어, 지역성을 지닌 중소도시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 3. 구체적인 대담 질문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지역의 문화(산업)생태계 또는 창의산업 생태계의 관점에서 대담을 하고자 한다. 이번 호의 대담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또는 잘 알고 있는 도시를 상정하여 답변을 하거나 또는 일반적인 상황을 참작하여 답변을 해주면, 독자들이 답변들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맥락에서 자신의 도시에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1. 올해의 대담주제는 “지역문화 생태계의 강화와 활성화”입니다. 유네스코 창의 도시와 관련하여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문화 생태계를 특히 지역창의산업 생태계와 관련하여 논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문화 생태계의 개념은 한 지역의 문화생태계를 전체적으로 분석하여 문화섹터와 각종 요소들 간의 체계를 이해하고, 이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여, 창의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이 유네스코 창의도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도움이 된다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이정덕:** 지역문화 생태계의 개념은 각 지역의 상황을 포괄적으로 이해하여 지역문화 생태계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의 생태계에서는 에너지와 물질을 통하여 서로 영향을 미치고 서로 순환하며 균형을 이루거나 또는 발전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한쪽이 과다하거나 부족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전체의 생태계가 축소 균형상태로 약화되거나 또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문화생태계도 사람과 돈과 노력을 통하여 서로 영향을 미치며 이를 잘 관리하면 발전된 균형으로 방향으로 나아가고, 특정 요소들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발전된 균형으로 나아가지 못하거나 또는 축소 균형으로 퇴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생태계에서 물질과 에너지가 환경,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더욱 풍부한 균형으로 발전할 수 있듯이, 지역문화 생태계에서도 사람과 돈과 노력이 다양한 제도, 조직, 생산자, 매개자, 소비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더욱 풍부한 균형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문화 생태계에서 어떤 요소들이 핵심적으로 작동하는지(요소), 그리고 이들 요소들 사이의 어떠한 관계가 현재 존재하고 이를 어떻게 재구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요소의 관계, 체계, 패턴), 사람과 돈과 노력을 어떻게 개선하는 것(핵심 동력의 변화)이 좋을지를 파악하면, 훨씬 체계적으로 지역문화 생태계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에서의 문화는 크게 3개의 층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생활과 관계에서 작

동하는 일상적인 문화(의미, 의례, 여가, 놀이, 일상예술, 일상공예 등), 지역공동체나 지방정부가 전체적으로 수행하는 공공문화(지역축제, 문화센터, 문화전당, 박물관, 공적인 문화예술지원, 문화재 등), 그리고 상업화된 문화(영화, 문화콘텐츠, TV나 OTT, 광고, 상업공연, 상업공예, 문화상품, 문화관광 등). 이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작동하지만 동시에 다른 층위에서 작동합니다. 상업화된 문화는 자본과 기술을 매개로 돈을 벌고자 하는 영역이고, 공공문화는 주민의 자부심을 높이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정체성을 높이고자 하는 영역이고, 일상문화는 주민의 삶과 즐거움과 관계를 위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3개의 층위가 다 관련되어 있지만 유네스코 창의도시는 지역의 문화를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을 강조하기 때문에 좀 더 지역에 밀착하여 품위있게 상업화를 하여 지역발전을 이루는 내용에 집중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집중하여 문화생태계가 해당 지역에서 작동하는 요소와 체계를 이해하면 이 부분을 더욱 체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생태계에서의 동적인 개념인 상호관계, 상호작용, 선순환 등의 개념을 도입하면 요소와 관계의 더 나은 상승 발전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결국 종합적인 안목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지역창의산업에의 개입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프란시스 소콤바:** 지역문화 생태계의 강화와 활성화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간 시너지 효과를 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화 생태계는 문화상품의 토대이자 창의산업 생태계의 발판이 되는 지역의 자산입니다. 지역문화 생태계를 잘 이해하면 생산자, 분배자, 소비자의 네트워크에 가치를 추가하는 창조 활동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의 성공적인 앞선 사례들을 도입하여 구조화하면서 지역문화 생태계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른 지역과 경험을 공유하며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거나 창출하면서 생산성을 강화하고 균형 잡힌 친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 지식은 최고로 중요하며 교육적입니다. 팀으로 협력하는 것이 지역문화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보존하는 최고의 전략이 될 것입니다. 지역문화 생태계는 역동적이고 그 탐험은 지속적인 발견으로 끝이 없습니다. 아직 많은 관행들이 연구되지 않았고, 일부 관행은 제대



로 문서화되지 않았으며 분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양성과 그 가치사슬은 생계의 원천입니다. 다른 지역과의 창의적인 지식 공유는 다양한 지역 문화를 넘나드는 풍부한 지식을 활용하여 지역 협력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이는 생태계의 이용 가능성, 비용 효율성, 그리고 무한한 창의산업 생태계에 대한 가치를 고려하여, 생태계의 잠재력과 자원을 인식하고 이해하려는 새로운 관점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타라 폴: 밸러랫(Ballarat)이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로 지정되면서 이 도시는 자체의 창의도시 전략을 보완하였습니다. 이 전략은 창의 종사자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보다 지속가능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이 전략은 창의기업과 창의적인 사람들이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실천을 측정하는 작업에 기초를 제공하고, 이어서 도시 계획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목표는 또 다른 중요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밸러랫은 새로운 작업 방식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이 여정은 이제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창의 종사자들과 기업을 보다 넓은 경제의 틀에 통합하는 것은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소규모 영세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돕고, 대규모 창의기업과 조직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더불어 보완적인 서비스를 유치하고 확보하여 건강한 창조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밸러랫의 새로운 세대의 호주인들은 잃어버린 전통을 되살리고, 직업기술 훈련 및 교육에 대한 지원을 재개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원주민의 지식을 더 많이 받아들이고, 잃어버린 풍부한 정보와 교육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가 이 문제에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주민 대표 및 옹호단체들은 옛 기술을 다시 배울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대적인 디자인을 적용하여 흥미와 대중적인 인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은 규모가 작고 조직화되어 있지 않아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호주연구위원회에서 자금을 지원한 연구 프로젝트는 미래의 창작을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공예 기술이 국가 경제 전반에 걸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따르면, 2021년 호주의 공예 경제는 116,538명(전체 노동력의 1.1%)을 고용하고, 192억 호주달러(전체의 1.0%)의 총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반면, 호주의 공예 경제는 2006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소율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가속화되고 있었지만,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밸러렛에서 경험하고 있는 점은 28개의 카테고리 그룹 중 창의부문이 밸러렛 경제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문이라는 것입니다. 2016년 이후 이 부문의 총 일자리 수(정규직 및 파트타임)는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이 일자리에서 창출된 수익은 감소했습니다.

2. 지역문화 생태계의 관점에서 대담자가 사시는 지역이나 참여하는 도시의 지역 문화 생태계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요? 단점을 극복할 방안은 무엇일까요? 지역문화 생태계라는 관점이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소콤바:** 지역문화 생태계는 사람들의 정체성, 관습, 영감의 원천입니다. 지역문화 생태계는 창작자들에게 수입을 제공하고 그들에게 주요 원천이 되는 문화적 관행을 지속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관행들은 친숙한 매체를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전승됩니다.

지역문화 생태계 중 일부는 보편적인 관행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특정 지역사회 내에서는 관행들이 비판을 받지 않고 행해지고 있습니다. 창작자, 분배자, 소비자 간에 지식 연결의 부족으로 결과물에 대한 합의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지식 보유자들은 이들 간의 효과적인 소통을 위한 지역문화 생태계에 대한 과학적 접근방식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역문화 생태계에 대한 품질 평가 지표는 일반적으로 측정 대상에 대한 명확한 개념화가 부족하여 혼란스러운 결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기술은 지역의 풍부한 유산과 지혜의 관행에서 발전된 전통을 보정하기 위해 기술적인 매개변수를 도입함으로써 문명을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지역문화 생태계를 좀 더 균형 잡힌 방식으로 프레임워크에 통합하기 위해서는 평가하는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새로운 혁신을 발견하고 가치사슬의 관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정덕:** 한국의 전주는 음식창의도시로 지정되어 있어 음식과 관련되어 있는 지역문화 생태계의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사람과 돈과 노력을 다양한 제도, 조직, 생산자, 매개자, 소비자의 상호작용의 체계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생태계적 요소와 체계를 고려하면서 먼저 사람과 관련하여 생각해보겠습니다. 전주는 이미 한국에서 음식으로 가장 유명한 도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 풍부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있고, 또한 관련 인재들의 수준이 높습니다. 또한 주민들도 음식에 관심이 높고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전통음식의 풍부함과 관련 인력들의 수준과 노력은 아주 높지만, 현대적 요소인 자본의 투입, 음식 현대화, 홍보 등에 있어서 현대의 상업적 요식업 체인들에게 밀리고 있습니다. 자본과 현대적 노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산자, 매개자, 소비자의 상호작용의 체계를 살펴보면, 전통적인 한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전주음식이 호소력을 가지고 있지만, 입맛이 서구화되고 있는 젊은 세대에서는 그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생산자인 요리사들은 대체로 나이가 들어 젊은층의 선호도를 반영할 수 있는 감각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매개자인 전주시에서도 전통음식의 레시피와 가치를 발굴하는 데 집중하고 있고, 전주시의 향토음식점의 지정도 전통적인 음식(주로 비빔밥, 콩나물국밥, 돌솥밥, 한정식)에 집중하고 있으며, 또 다른 매개자인 식당연합이나 요리사연합 또는 유네스코 전주음식창의도시 시민네트워크 등도 전통적인 음식에 집중하면서, 소비자의 입맛이 변화하는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 생태계의 개념은 사람과 돈과 노력이 다양한 제도, 조직, 생산자, 매개자, 소

비자의 상호작용의 체계를 통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전체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지를 훨씬 빠른 시간에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나타나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요소가 더 체계적인 노력을 하여야 함을 보여줍니다. 지역문화 생태계의 관점에서 보면 전통음식과 관련된 제도, 조직, 생산자가 잘 갖춰져 있고 또한 역사와 생활화를 통하여 뿌리 깊게 시민들 사이에 자리를 잡고 있지만, 소비자의 변화에 따른 다른 요소와 체계들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커다란 단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의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전주의 인제도 돈도 노력도 부족함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지역문화 생태계 개념은 전체적인 지역생태체계의 한계와 노력의 방향성을 잘 드러나게 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2023년 7월 7일 제8회 진주시 UCCN 국제학술토론회 기초 발제의 주제가 ‘지역의 문화예술 생태계 구축 - UCCN 프로그램의 역할을 중심으로’였습니다. 이 발표에서 문화의 생산자, 분배자(유통자), 그리고 소비자의 유기적 관계가 생태계 구축의 중요한 요소로 언급되었습니다. 대담자가 속해 있는 지역의 문화생태계의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 세 요소의 강점과 약점은 어떤 것들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성진: 진주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농악과 오광대를 비롯하여 악(樂)·가(歌)·무(舞) 및 전통공예 등의 무형문화유산들이 풍부하게 전승되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통문화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가꾸어 왔습니다. 오랜 세월을 걸쳐 구축된 문화예술 생산자 그룹의 전승체계는 예향으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토대가 되었고, 잠재적 인재를 발굴하는 채널 구실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예술의 풍부한 생산적 기반에도 불구하고 해당 분야에 지속성을 가지고 종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까닭은 문화예술을 전문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분배자나 매개자가 없어 생산과 소비를 유기적으로 연결 짓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지속적인 지지와 관심을 가져 줄만한 열성 고객층을 형성하지 못하였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문화예술 활동의 일상성을 보장하고 창작-유통-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획과 관청의 지원을 강화하여 문화생태계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콤바:** 우리 문화 생태계의 강점은 원재료의 가용성, 생태학적 지속가능성, 건전한 전통 관습의 유지에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원주민의 언어를 통해 수행되기 때문에 노력이 될 필요한 편입니다. 생산자, 분배자, 소비자 사이에는 상호 이익이 존재합니다. 원주민들은 생산 라인의 실용적이고 상업적인 가치에 기반하여 작업을 합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강력한 신뢰를 가지고 지역사회 공간 내에서 작업을 합니다. 원주민들은 또한 작업에 있어서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평범한 일상에 익숙하고 경쟁이 적은 시장에서 즐겁게 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자연 환경과 관련된 영적인 경험을 통해 편안함을 느낍니다.

생산자, 분배자, 소비자는 지식 공유가 부족하고 새로운 상품을 시도할 때 새로운 사고 방식을 채택하지 못해서 혁신적이지 못합니다. 이들은 종종 강하게 편향된 신념 체계에 영향을 받고 자신들의 작업을 문서화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역문화 생태계에 대한 교육 지원이 부족하여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들은 미학적 인식에 투자할 시간이 적고 광범위한 연구에 투자할 여력도 부족합니다.

**이정덕:** 문화의 생산자, 분배자(유통자), 그리고 소비자의 유기적 관계가 생태계 구축에 아주 중요하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음식창의도시에서의 생산자는 요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주가 한국 최고의 전통음식도시로 유명할 정도로 가정에서의 요리도 매우 평판이 높고 상업화된 식당의 맛도 전국적으로 평판이 높습니다. 전주음식은 역사와 일상문화(가정의 일상음식과 잔치음식)에 뿌리를 두고 있어 생산자의 수준은 매우 높습니다. 문제는 소비자의 기호가 젊은 세대로 갈수록 바뀌고 있는데 생산자들의 이에 대응하는 노력과 도전성이 높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전주음식의 뿌리가 워낙 깊다보니까 전통에 안주

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깊은 뿌리와 현대 소비자의 기호 변화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소비자의 기호가 바뀌면서 전통음식에 대한 소비가 줄고 있기 때문에 전통음식에만 집중하고 있기에는 미래 발전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음식을 어떻게 재포장하고 변화시켜 현대적 기호를 만족시킬 것인지, 현대적 음식에 어떻게 전통성을 가미하여 전주음식으로 전통성과 현대적 기호를 만족시킬 것인지, 또는 전통음식에 집중하고 이에 대한 시장을 세계적으로 확대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 설정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매개자로서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지닌 전주시와 음식단체들이 전주음식의 이러한 한계를 충분히 고민하고 돌파할 방법을 찾아내는 노력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음식연구자들이나 학자들도 주로 전통음식의 발굴과 의미 부여에 집중하면서 새로운 시대적 상황을 극복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시도해보는 노력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음식 기업들이나 자본이 이러한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시도하면서 새로운 방향을 찾아낼 수도 있겠지만, 전주에서 작동하는 음식 기업들이나 자본이 매우 소규모이어서 세계적인 안목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방향을 찾아 시도해보는 노력이 부족합니다. 소수의 음식점들이 기존의 메뉴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프랜차이즈화하는 노력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의 음식 부분에 있어서는 음식문화의 생산자와 분배자(유통자)가 소비자의 변화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중간 매개자인 기업, 시정부, 시민단체, 학자도 생산자를 도와 소비자의 변화에 적응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지역문화 생태계의 관점에서 다양한 부분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며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귀하의 도시에서는 지방정부, 단체, 예술가, 자본(기업), 향유자가 서로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체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요? 현재 이러한 연계 거버넌스나 플랫폼이나 메카니즘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요? 또한,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상호작용이 더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정덕:** 전주시나 요리사나 전주시민이 스스로 한국 최고의 음식도시라고 생각하고 또한 전국적으로도 그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전주시정부, 요리사단체, 식당단체, 요리사, 주민 사이의 협조와 관계는 매우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오래된 음식점 96개를 ‘백년가게’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유네스코 전주음식창의도시 시민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음식창의도시의 전체적인 협동과 조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음식아카이브, 전주음식 계보 잇기, 전주음식 손맛 전수교육, 향토전통음식 및 전주음식 명인·명가 육성, 한식 전문인력 양성, 전주음식축제, 외식업 육성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협조체계는 주로 전주시의 주도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나서지 않으면 이러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시민단체와 전문가의 조직으로 다양한 연계를 통해 전주음식창의도시를 발전시키려는 유네스코 전주음식창의도시 시민네트워크도 시의 지원이 없으면 제대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기적인 상호작용보다는 전주시가 주도하는 연계망과 활동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한국이 지난 1000년 이상 국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와서 시민단체들이나 전문단체들이 많이 조직화되어 있음에도 이들 시민사회의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활동보다 대체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시민조직들이 움직이는 상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부, 시민단체, 요리사, 자본(기업), 소비자의 조직과 네트워크가 만들어

져 있기는 하지만 시정부의 관심이 떨어지면 조직과 네트워크의 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유네스코 전주음식창의도시 시민네트워크는 이러한 조직들을 연결하고 조율하기 위해 결성된 플랫폼으로 볼 수 있는데, 시정부의 지원이 줄어들면서 최근 들어 그 활동이 뜸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이러한 연계를 종합하고 자극하기 위해 ‘전주음식이야기(jeonjufoodstory.or.kr)’가 만들어져서 기본 정보는 제공하고 있지만, 다양한 조직들을 연결하고 조율하는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은 약한 편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상호작용이 더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주시정부, 유네스코 전주음식창의도시 시민네트워크, ‘전주음식이야기’가 서로 지원하고 연결하여 이들의 연계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요리사와 자본(기업)의 전문적인 창의성과 사업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고, 더욱 적극적으로 소비자의 기호에 대응하여 계속 음식 창의도시로서의 활력을 유지하거나 높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소콤바:** 지역문화 생태계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상호작용이 거의 없어서 유산의 지속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상호작용은 주로 연례 문화 축제, 타운홀 미팅, 비공식적인 모임에서의 개별 전시 등과 같은 전통적인 플랫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호작용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신중한 정책 수립, 지속가능성 계획 개발, 보존 및 저작권법 제정, 인센티브 패키지 배포, 규제 협의체 설립 등을 통해 보다 현대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기존의 격차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제도적 지원, 워크숍 교육, 연구 자료, 상품 전시, 교류 프로그램, 공모전, 우수상 시상, 문서화 등을 통해 상호작용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또한, 예술 공간을 위한 플랫폼을 도시 디자인에 포함시키고, 우수한 공예 창작자들을 도시 브랜드와 기념물의 일부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창작자, 분배자, 소비자 간의 상호 작용을 개선할 것입니다.



5. 지역문화 생태계는 문화예술 분야의 창작자, 생산자, 실연자, 지원자(정부, 단체, 문화재단 등), 매개자, 참여자 등으로 구성된 수많은 네트워크를 포함합니다. 기존의 지역문화 분석에서 주로 창작자, 생산자, 실연자의 관점에서 지역문화를 분석하였다면, 지역문화 생태계의 관점은 지원자, 매개자, 참여자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도시에서 창작자, 생산자, 실연자, 지원자, 매개자, 참여자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어디일까요? 취약한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창작자, 생산자, 실연자, 지원자, 매개자, 참여자의 상호작용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은 무엇일까요?

**남성진:** 진주는 생산자와 창작자의 경우 어느 도시에 비해 뒤처지지 않는 인력층을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창작과 형상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문화예술의 도시라는 위상을 확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와 참여자의 지지와 관심도는 어느 도시에 비해 낮은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관 주도 행사에 편중된 예산 분배로 인해 민간 예술활동의 활로와 공급망 불균형, 매개자 부재로 인한 문화예술 유통체계의 미비 등이 영향을 끼친 까닭입니다. 따라서 변화하는 문화적 환경 속에서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자발적인 연대와 민간 주도의 협력체계 구축, 시민·예술가·행정 등 세 부류 주체들의 문화협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문화예술 분야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지방정부의 지원과 안정적인 지속가능한 예술 유통 생태계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콤바:** 창작자들은 새로운 혁신, 최신 도구 및 장비에 대한 접근성, 기술 교육, 재정 지원, 생산성, 원자재, 보조금 등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합니다. 지역문화 생태계 내에서 특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상품의 선순환 구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창작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작

품을 연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신의 작품에 적용해야 합니다. 제작 시간을 단축하고 기술을 매체에 쉽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의 활용이 필수적이며, 친환경 기기를 사용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문화 생태계의 다양한 재료들을 통해 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역량 강화, 교류 프로그램, 예술가 레지던시 프로그램, 그룹 및 공동 전시 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상호작용을 강화하여 도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접근 방식으로는 다른 지역문화 생태계 간에 재료들을 교환하여 기술과 재료의 수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지역문화 생태계 배경을 가진 창작자들 간에 기술 및 재료의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상호작용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예 축제의 일부로 공예 경연 대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특정 시간 내에 작품을 제작하는 데 있어 기술, 창의성, 미학, 시간과 공간의 효과적인 사용에 대한 평가를 목표로 창의도시 내 상호작용을 더욱 강화시킬 것입니다. 다양성은 끝이 없기 때문에 창의도시의 지역문화 생태계 내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상호작용을 지속할 수 있어 모두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정덕:** 전통음식의 경우 요리사(요리의 경우 요리사가 창작자, 생산자, 실연자를 겸하고 있다), 지원자, 매개자, 소비자를 핵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전주시는 음식도시로서 이미 확고한 명성을 한국에서 가지고 있을 정도로 요리사의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요리사의 교육과 발굴도 잘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전주시의 지원도 음식산업의 여러 방향(전통음식 발굴, 인재 양성, 식당 개선, 가치 제고, 세계 확산)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매개자(시민단체, 요리사단체, 식당단체, 요리 해설)도 갖춰져 있고 또한 나름대로 협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한국에서 음식 소비자의 취향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층의 취향이 빠르게 서구화되면서 전통음식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 취향의 빠른 변화를 요리사, 지원자, 매개자가 제대로 대

응하지 못한다는 점을 가장 커다란 취약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주 시내에서 전통음식에 대한 다양한 행사와 책의 발간과 시식을 통하여 전통음식 취향을 보존, 고급화,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 취향의 서구화라는 커다란 흐름을 되돌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변화하는 기호에 맞추는 창조적인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요리사의 더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는 전주시의 지원도 더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풀:** 벨러렛시의 번영을 위해서는 창의부문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9년에 벨러렛시는 대기업부터 소규모 개인 사업자에 이르기까지 창의부문을 파악하고 추적하기 위해 창의부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시작했습니다.

창의부문 데이터베이스는 이 복잡한 부문의 필요와 요구사항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28개의 하위 부문이 식별되고 70개 이상의 창의 서비스가 추적되는 이 데이터베이스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 가장 성공한 사람들,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벨러렛은 창의적인 영세기업, 개인 사업자 및 개인 종사자들이 모여 있는 도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의 활동으로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 해에만 자영업을 하는 전문적인 창의 종사자들이 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의부문 데이터베이스를 보완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창의부문 설문조사 (Creative Sector Survey)를 도입하여 벤치마크를 설정하였습니다. 우리는 둘 이상의 수입원을 갖고 있는 창의 종사자들의 비율에 대한 측정을 포함하여 창의부문의 경제적 안정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왔습니다.

벨러렛의 창의부문 종사자 중 62%는 다양한 수입원에 의존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한 해 동안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

1. City of Ballet, Creative Sector Survey 2022 & 2023.

창의 종사자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격차는 성별에 따른 소득 수준입니다. 2022년에 자신을 여성이라고 밝힌 응답자 중 45%가 가구 소득이 연간 50,000달러 미만이라고 답했습니다. 남성이라고 밝힌 응답자의 경우, 소득이 50,000달러 미만이라고 답한 비율은 20% 미만이었습니다. 2023년에는 창의부문 여성의 소득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50%가 가구 소득을 연간 75,000달러 미만이라고 답했으며, 13%는 연간 25,000달러 미만이라고 답했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이 설문조사 덕분에 창의도시팀은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특정 그룹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보완적인 서비스와 관련 서비스를 도시에 유치할 필요성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설문조사의 적용과 그 결과로 얻은 강력한 데이터를 통해 이 부문의 성과와 가치를 지역사회에 잘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6. 유네스코 창의도시의 목적에는 경제 활성화도 들어가 있습니다. 귀하의 도시에서 창의산업활성화를 위하여 전략 설정과 실천, 자본 투입, 주민의 소비, 관광객 소비, 외부로의 판매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어느 부분은 왜 잘 이루어지고, 어느 부분은 왜 잘못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들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풀: 창의경제의 활성화는 밸러렛의 경제 전반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요건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멜버른과 같은 대도시에서 밀려난 창의적인 사람들이 이곳으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자신의 사업체를 밸러렛으로 옮긴 후에는 창의적인 작업의 전반적인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관광객과 방문객들은 이 도시를 방문할 때 창의적인 경험을 원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이러한 경험에 대해 이들이 실제 시장 가격을 지불하려는 욕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은 여전히 예술과 창의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밸러렛의 숙박 문화 방문객 수는 2022년과 2023년 사이에 10% 이상 증가했습

니다. 2023년에 뉼러랏을 방문한 방문객 중 27.5%가 예술, 문화, 유산, 원주민 활동 등 문화 체험에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이는 문화 경제에 1억 1,900만 달러가 투입되는 것과 같은 수치로, 2022년의 9,200만 달러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레이터 뉼러랏(Greater Ballarat)에서 관광객이 지출하는 1달러당 0.10달러가 일반적으로 예술 및 레크리에이션 서비스에 지출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2019년 이후 20% 증가한 수치입니다.\*\*

뉼러랏시는 창의적인 경험에 대한 관광객의 수요 증가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2023년까지 창의적인 소규모 기업이 문화 관광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규모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현재 증가하고 있는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지속적인 관광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 영세기업과 탄탄한 창의기업 사이에 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현재 이처럼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고 있는 상황에서 뉼러랏시는 상호 보완적인 조직과 기업을 도시로 유치할 수 있는 진정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남성진:** 진주시는 그동안 다양한 문화자산을 보유하고도 이를 활용하여 문화산업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해결해야 하는 당면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중점전략으로 진주시가 보유한 다양한 문화자산을 활용하여 문화콘텐츠의 개발과 유통 경로를 다각화하기 위한 지원 계획을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몇 가지의 융복합예술 공연 제작과 공예 창업 아이디어 공모, 비엔날레 등을 개최하면서 예술인을 비롯하여 지역 주민 및 외래 관광객들에게 사업 개발과 관람,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별 공예가의 작품도 외래 판매 기회를 마련하여 경제 활성화의 측면에도 기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민속예술 현장에서 느끼는 산업적 활성화의 체감 온도는 낮습니다. 그 까닭은 진주라는 제한된 공간적 범주에서 예산과 무대 부족으로 매년 똑같은 공연 형태를 지속하다 보니 그에 따른 식상함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민속예술인들의

---

2. Tourism Research Australia, March 2023.

3. REMPLAN 2022 R2 and 2019 R2.

자괴감은 높아졌고 창작 의욕을 위축시켜 산업화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콘텐츠는 어느 정도 새로움이 있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우려먹는다는 느낌이 들면 발전이 없습니다. 좀 더 질 좋은 J(진주)-콘텐츠와 작품을 만들 수 있게끔 창의적 분위기 조성 and 유통권의 활로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정덕:** 전주시의 경우 1년에 1,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도시이기도 하고, 또한 한국에서 음식으로 가장 잘 알려진 도시여서, 관광객이 전주를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음식을 찾아서 소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소비로 많은 식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대략 식당 5천 개에서 2만 명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관광지인 전주한옥마을과 인근에 음식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음식취향이 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하는 취향에 맞추기 위하여 전통음식에서 창조적 변화들이 필요합니다.

전주시는 전통음식의 발굴과 개선에 집중하면서 이러한 변하는 음식 기호에 대해서는 전략설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 음식의 외부로의 진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음식도시 이미지를 통한 관광객의 음식 판매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다른 도시에 비교하여 점차 음식 명성도 약해지고 있다는 평판이 많습니다.

전주 시민만으로는 일단 고급 전통음식에 대한 소비가 한정되어 전주 전통음식의 이미지를 고급화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또는 세계로 확산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오히려 고급 한정식집들은 문을 닫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업체의 규모가 작아 자체적으로 고급 음식 개발이나 창조적인 음식 개발이 힘들고, 자본이 부족하여 지점이나 프랜차이즈 등을 통한 음식점 확대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첫째, 전주 요리사들의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음식 개발이나 개선이 필요합니다. 둘째, 전주 시민들의 자본이 적기 때문에 외부의 대자본을 유치하여 연합하여 레시피를 표준화시키고 보다 적극적으로 프랜차이즈나 지점을 개발할 필요

가 있습니다. 셋째, 세계적으로 점차 K-food의 명성이 올라가고 있어 해외에 대한 진출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넷째, 이를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조율할 전주시의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관광객들이 보다 찾기 쉽게 지역별 전문화된 식당가 조성 그리고 전주 음식과 연계된 다양한 관광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합니다.

7. 지역문화 생태계가 건강하게 지속되기 위해서는 예술가나 자본을 넘어서 각종 기관과 단체들의 활발한 활동,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미래를 위한 적극적인 청소년 창의교육,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귀하의 도시에서 이러한 부분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혹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좋을까요?

**풀:** 현대 호주 도시에서 창의성과 공예의 견고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식민지 시대 이후 잦은 경제적 및 사회적 변화의 물결은 전통지식과 공예 관행을 붕괴시켰을 뿐만 아니라 서구 사회의 현대 경제학은 생존을 위한 공예의 능력을 약화시켰습니다. 밸러랫은 공예가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푸시-풀(push-pull) 전략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에는 조화롭게 작동해야 하는 무수히 많은 전략이 포함되어 있으며, 도시의 미래 계획이 새로운 교외 지역과 개발에 예술과 문화를 통합하도록 보장하는 전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가 성장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수용하면서 다음 세대의 도시 거주자들을 위해 작업장, 스튜디오, 갤러리, 리허설 공간 등의 문화 자산을 구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밸러랫은 오래된 건물을 창의적인 용도로 쉽게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밸러랫은 계획과 유산의 제약으로 인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산 건물이 있는 도시로서, 이러한 제약들이 종종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도시의 유산은 도시 정체성의 상당 부분을 규정하고 있어서, 유산의 한계를 거스르지 않고 활용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공예 종사자들은 상업적 임대보다는 비전통적인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활용도가 낮은 공

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밸러렛시는 소규모 영세기업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체계적인 비즈니스 기술, 네트워킹, 적극적인 협업 촉진, 그리고 창의기업이 지역 도시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수출 준비’ 계획 수립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밸러렛시는 이미 이 도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제작자들을 보완하는 창의산업을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센티브와 기타 프로그램을 통해 중간 규모 및 대규모의 창의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밸러렛시는 창의적인 제작자들을 환영합니다. 이들의 활동은 간단하지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밸러렛시는 제작자들과 장인들이 더 큰 공동체의 일부로 자신을 인식하도록 돕고, 이들 간의 상호 협력과 지원을 장려하며, 시민과 지역사회의 자부심을 키우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로서 밸러렛의 내러티브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일은 그 자체로 큰 호응을 얻어 그 기세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요구입니다.

**이정덕:** 다른 도시들과 비교하면, 전주시는 전주음식의 발굴, 의미 부여, 상품화, 홍보, 인력 양성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들의 전통음식에 대한 연구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요리사의 양성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식당협회의 활동은 현상의 부분적인 개선에 머무르고 있고, 도전적으로 출발했던 유네스코 전주음식창의도시 시민네트워크도 창조적 노력은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도전적이고 창의적으로 새롭게 개발하고 시작하기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주시민과 관광객의 안정적인 수요에 주로 의지하다 보니 새로운 기회를 창조적으로 만들어 찾는 위험감수형 노력이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나빠지거나 관광객이 줄어들면 음식점 수도 같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험감수형 창조적 요리사와 기업가들이 더 많이 나와야 창조산업으로서의 전주음식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성진:** 진주지역의 문화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속하는데 있어서 각종 단체의 중요한 기여가 있었습니다. 진주문화연구소는 그동안 지역문화 생태계를 연결하는 활동과 실천적 정책 및 방향을 제안, 제시해 왔습니다. 삼광문화연구재단과 남성문화재단은 예술인들이 원활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시민들의 문화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속예술보급 사업과 진주시읍면동풍물대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졌고, 여기서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아와 초등학생들에게 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창의인재의 조기 발굴에 기여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과 후원에 힘입어 국제적인 교류 활동과 창의적 분위기 조성 및 창의인재 양성 등 지역적인 사업을 어느 정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이러한 활동들이나 교육 등이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창의도시 디자인 센터’ 같은 것이 구축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지원체계와 함께 민·관·산·학의 협력 시스템의 구축도 필요합니다.

8. 문화는 산업과 달리 이윤이 생기지 않는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윤추구 창의산업이 이윤이 없는 정부 지원 예술활동, 그리고 주민들의 일상적 창의활동이 조화를 이뤄 상호작용을 해야 지속적인 이윤추구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귀하의 도시에서는 이윤추구 창의활동과 비이윤추구 창의활동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요? 이러한 조화를 잘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할까요?

**남성진:** 이윤이 있는 지원 활동은 비엔날레 개최와 공연제작 사업, 공예 창업 아이디어 공모 등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윤이 없는 지원 활동은 저널 발간 및 토론회 개최와 같은 국제적인 활동과 인재 양성을 위한 민속예술보급 사업,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한 문화예술택배 사업 등의 지역적인 활동이 있습니다. 이들 두 가지 활동은 문화와 문화정책의 역할을 모색하며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후속세대 양성과 문화적 권리

증진,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문화적 실천 사례로 적용함으로써 서로 보완적 관계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 왔습니다. 두 가지의 활동이 조화를 이루며 시민들의 삶에 잘 스며들고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윤을 추구하는 활동이 가치를 추구하는 비영리적 활동을 돕거나, 역으로 비영리적 활동을 통해 이윤을 발생시키는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하여 지역 사회 전체의 화합과 협력, 공존과 균형과 같은 수평적 가치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로써 공익적 차원에서 사회적 가치 창출에 힘쓰야 할 것입니다.

**이정덕:** 음식은 창조산업으로서 확대되려면 이윤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주시는 음식 명성을 유지하고 전주음식에 대한 관심과 홍보를 위해 다양한 음식축제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음식 레시피 발굴, 각종 요리체험교실의 운영, 전주음식에 대한 조사와 아카이빙, 온라인 음식스토리 운영, 음식축제, 음식경연대회 등을 통해 전주의 음식도시의 명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얼마나 이윤추구 창의활동에 기여하는지는 불명확합니다. 전주의 음식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거나 유지하여, 전주의 음식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키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좀 더 눈에 띄게 전주시나 시민들의 음식에 대한 프로그램과 활동이 이윤추구 창의활동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하자면, 요리사와 자본이 좀 더 기업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창조적으로 음식을 개발하고 판매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9. 지역의 문화유산, 전통, 정체성은 창의산업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또한 창의산업으로부터도 커다란 영향을 받습니다. 귀하의 도시에서는 주로 하고 있는 창의산업이 지역의 문화유산, 전통, 정체성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요? 또한 강점과 약점은 무엇일까요? 이들의 선순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풀:** 벨러랫은 호주 빅토리아주 서부에 위치한 작은 도시입니다. 인구가 12만 명이 조금 넘는 이곳은 호주 기준으로 보면 꽤 큰 규모의 지방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빅토리아 서부의 골드필드 지역으로 가는 관문이자 새로운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던 골드러시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원주민인 와다우롱족(Wadawurrung people)은 환경 파괴와 황폐화를 겪어야 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6만 년에 걸쳐 쌓아온 지식과 환경 관리가 사라지고 풍부한 문화적 전통도 사라졌습니다.

1800년대 중반에 벨러랫은 한때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곳 중 하나였으며, 그 덕분에 도시 중심부에는 식민지 시대의 건물과 유럽풍의 거리 풍경이 남아 있습니다. 이 도시의 부는 도서관과 갤러리, 예술학교와 대학, 장인과 제작자들을 불러 모았으며, 도자기에서 철공예에 이르는 새로운 분야가 자리를 잡으면서 공예의 식민지화가 완성되었습니다.

벨러랫은 지속적으로 실존적 위기를 겪어 온 도시입니다. 식민지화와 골드러시의 경험, 광업에서 농업으로, 그리고 이제는 제조, 교육, 의료 분야로의 전환이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멜버른 대도시로 통근하는 외곽 교외 지역으로 발전했습니다. 따라서 이 도시는 새로운 인구 유입과 함께 또 다른 문화적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변화는 환경 문제, 기후 변화, 복잡한 사회 구조와 맞물려 있습니다. 벨러랫의 창의부문은 이에 적응하기 위해 현저하게 변화해야 했습니다.

벨러랫은 문화 경제의 보호 및 강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전략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이론은 오래된 관행을 새로운 아이디어와 결합하여 미래를 위한 새로운 참여 형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것입니다. 창의경제를 도시 운영에 포함시킨다는 아이디어는 미래의 경제적, 사회적 충격으로부터 도시를 부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정덕:** 전주시는 오래전부터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도시로 알려져왔습니다. 이미 전국적으로도 유명하고 또한 전주시민도 이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음식창의 도시는 전주의 음식무형유산, 음식전통, 정체성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이루어졌고, 또한 이를 반영하여 전주시정부와 시민들도 전주음식에 매우 높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산골, 평야, 바다를 가까이 접하고 있고 이러한 다양한 지역의 식자재를 신선하게 활용하여 좋은 음식을 만들어온 역사와 정체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도 전주 음식 자체뿐만 아니라 이의 산업화에도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주음식을 발전시키려는 전주시의 발전 방향에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지역엘리크, 시민이 함께 이를 공유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점은 커다란 장점입니다.

이에 비해 새로운 기호에 맞는 창조적인 음식개발과 이의 판매를 적극 확대하려는 기업가적 마인드가 부족한 것이 약점입니다. 더욱 적극적인 선순환을 위해서는 요리사의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기업가적 마인드가 필요하고, 이를 지원하고 새로이 개선된 음식을 전국에 세계에 판매하고자 하는 시정부와 자본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가 필요하다. 요리사라는 인재는 풍부하지만 기업가마인드와 자본은 부족하여 정체된 순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